

동명동 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동행 마을을 걷다' 진행



광주 동구 동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남철)는 동구 어르신들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근 '따뜻한 동행 마을을 걷다' 행사를 열었다. 동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자 동명동 지사협 위원과 어르신 10명을 1:1 매칭해 문화 체험과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지사협 위원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교육을 진행했으며 푸른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도 함께했다.

또 동구 인문학당, 여행자의 ZIP(집), 소영 갤러리 등을 방문해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난 동명동의 변화를 체험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마을 곳곳의 풍경을 촬영한 사진은 향후 동명동 마을총회에서 전시된다. 윤남철 위원장은 "동명동을 추억하고 새로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빛고을 고운 최치원 기념사업회, 인문학 포럼 성료



'(사)빛고을 고운 최치원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고운(孤雲) 최치원 인문학 포럼'이 4일 광주향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인문학 포럼은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김경호 교수, 전남대학교 사학과 송은일 교수, 군산대학교 철학과 김성환 교수가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석인사로는 장청강 주광주 중국 총영사,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오기주 광주향교 전교, 이태호 광주광역시 문화협회의장, 고재유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최치원(857년~?)은 유교·불교·도교에 깊은 이해를 지녔던 신라 말기 대학자로서 한국인문학의 시조로 여겨지고 있다. 광주 남구 양과동 715-1에는 최치원을 배향(配享)하기 위한 지산재가 있다. 지산재는 최초 조선 영조 13년(1737년)에 세워진 이후 1979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 포럼은 문화적 자원인 '지산재'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호남문화재단연구원 등 아시아문화박물관 기능 강화 협약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과 호남문화재단연구원(이사장 임영진), 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 김성중)은 최근 호남문화재단연구원 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박물관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아시아박물관 산책' 등 박물관 문화강좌와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해 추진키로 했다. 협약서는 ▲전시, 문화강좌, 학술연구 등 박물관 관련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아시아문화박물관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동 개발 ▲각 협약 기관의 시설과 자원 활용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타 상호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전시와 학술연구, 프로그램 등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더욱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남동발전여수본부,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한국남동발전여수발전본부는 최근 전남사랑의열매를 통해 여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남사랑의열매 제공>

충장동 희망나눔실천단, 독거 어르신에 이·미용 봉사



광주 동구 충장동 희망나눔실천단 소속 분과 위원 '강숙희 미용실'과 '미헤어포인트'는 동구 소재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근 '이·미용 봉사 서비스'를 진행했다. <광주 동구 제공>

동강대 '도서 다독자' 시상식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최근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제21회 도서 다독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도서관(관장 지혜련)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 대출 횟수가 많은 재학생 4명과 다독 최우수 간호학과를 선정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동강대 제공>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Broadcast Time, and Program Description.

EBS1

Table with 3 columns: Broadcast Time, Program Name, and Program Description.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7일(음 10월 14일 甲子)
36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48년생 불면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60년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72년생 변경하거나 추가하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 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84년생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고군분투했다. 96년생 초기에는 영세하나 나중에는 성황을 이룬다. 행운의 숫자 : 08, 74
37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었다면 큰일을 놓치는 법이다. 49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1년생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73년생 협조를 구한다면 자정하는 이가 생긴다. 85년생 여러 가지 불만함이 합쳐져서 매우 곤혹스럽겠다. 97년생 규칙적이라면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19, 71
38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부를 것이니라. 50년생 순식간에 벌어지고야 말 것이니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62년생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74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86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98년생 백지한 장의 차이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5
39년생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51년생 복잡해지면서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는 정황이다. 63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75년생 작은 흠결이 보이지만 열려할 바는 아니다. 87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져 보일라. 99년생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9, 73
40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52년생 가시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면에 주목해야 할 때다. 64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76년생 정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88년생 파장에 남은 부스러기만 살피고 있는 형상이다. 00년생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하는 고통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82
41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치의 고저를 좌우한다. 53년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65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던 것이 앞에 펼쳐지리라. 77년생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자주행하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니라. 89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01년생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2, 68
42년생 아니다 싶으면 즉시 접어라. 54년생 흥과 북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66년생 외부적 요건에 구애받지 말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 78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운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이전의 양태와는 전혀 별개이니 따로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02년생 급작스러운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2, 65
43년생 성의껏 협조하는 것이 맞다. 55년생 운운만 잘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다. 67년생 공명정대한 자세로 당당하게 일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79년생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는 형상이다. 91년생 주종에 따라서 선후를 따져야만 하느니라. 03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40, 89
44년생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야 뒤따라 없다. 56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68년생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라. 80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04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 같고 버려지니 애가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94
45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45년생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진귀한 날이로다. 57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무의미하다. 69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마당이다. 81년생 양호한 판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93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리라. 행운의 숫자 : 00, 96
46년생 조짐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현상을 예견한 셈이다. 46년생 도움이 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70년생 모든 일이 순행하면서 행운을 가져다주리라. 82년생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94년생 첫눈에 배부르라? 행운의 숫자 : 10, 61
47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시종일관 일치해야 성취되리라. 47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민첩하라. 59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71년생 방도와 해안을 찾아낼 수 있는 여건이 따른다. 83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리라. 95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47, 91